

# “21세기 정보메카의 꿈을 띄운다”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의 화려한 한마당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중추기지로 자리잡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을 세상에 알리는 힘찬 첫걸음이 시작됐다. 문화의 날인 지난달 20일, 통일의 상징, 파주군 교하면 문발리 자유로변에서 명명식이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 이인제 경기도지사, 이호계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박명근 민자당의원, 설계를 맡은 황기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사업 추진을 맡은 이기웅 출판단지조합 이사장, 정진숙 출판금고 이사장을 비롯한 출판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명판을 개봉했다.

김경희 한국출판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김영삼 대통령의 축하메시지 낭독, 축사 및 치사, 개발계획 브리핑, 명판개봉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영삼대통령은 정진숙 출판금고 이사장이 대신 읽은 메시지에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명명식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이 단지가 동양최대의 문화발신 기지가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허규(축제예술 대표)씨가 총연출을 맡은 고유제(告由祭), 천고(天鼓)울림과 지신밟기 등 전통놀이를 접목시킨 식전후 행사가 다채롭게 치러졌으며,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오찬을 즐기며 자축했다.

출판·인쇄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대규모

출판단지의 건립은 지난 88년부터 거론되기 시작, 여러번의 난항을 거쳐 지난해 7월 김대통령이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던 부지가 일산 신도시에서 파주군 교하면으로 변경되는 등 활기를 띠었다.

문화체육부와 단지사업조합측이 공동 추진해온 이번 사업은 당초 48만 6백40평(유수지 6만7천평 포함)의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측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난항을 겪던 중 부지를 절반인 26만여평으로 축소하고 이 일대에 보안시설물을 설치하는 선에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

계획대로라면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심의와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가공업단지 지정을 받게 되는 내년 10월 기공식을 갖게 된다. 총 소요사업비 3천3백억원(국고 4백60억원, 민간자본 3천3백40억원)을 들여 단지가 99년 완공되면, 출판지구(81,000평), 인쇄지구(25,000평), 인쇄지원지구(8,000평), 출판물종합유통센터(24,000평) 등 기반시설과 문화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 단지가 완공되면 지식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정보산업의 메카로 자리잡게 됨은 물론 협업체제를 통해 출판부문에서 5%, 유통부문에서 2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전체적으로 20% 정도의 생산증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출판계는 전망하고 있다. — 허연 기자



1. 교하(交河)면 문발리는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이뤄낸 기름진 땅이다. 심학산을 등에 지고 멀리 북녘을 바라보는 곳에 박아둔 명판을 한바퀴 돌려 행사장까지 휘돌아오는 남시당패의 ‘길놀이’로 문발리 지신(地神)개 모든 출판인의 꿈을 기원하는 신명나는 잔치는 시작됐다.
2. 출판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기원하는 고사와 덕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기웅 출판단지조합 이사장이 고사제와 액막이를 위한 북어, 시루떡을 차려놓은 상 앞에 나아가 고유제(告由祭)를 지켜줄 불을 밝힌다.
3. “문발리 지신님, 출판단지 건물축조에 큰힘 주소서.” 자유로를 옆에 끼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꿈은 이제 현실로 다가온다. 그런 뜻이 펼쳐지는 현대적인 단지가 출판산업을 새로운 도약으로 이끌 것을 바라는 출판인의 기원은 끊이지 않는다. 한국출판금고 정진숙 이사장과 삼성출판사 김종규 회장의 기원.
4.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의 ‘치사’ 역시 출판이 문화의 기동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준다.
- 5.6 출판단지의 추진경과보고와 축하 메시지, 개발계획 브리핑으로 이어진 공식행사 가운데 가장 으뜸은 명판개봉식. 주돈식 문화체육부장관과, 이인제 경기도지사, 이호계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인사 12명이 발파대 앞의 단추를 누르는 순간, 심학산 자락 아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2글자의 명판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오색연기와 큰북의 울림속에서 자리에 함께 한 출판인의 가슴에는 그동안 정성껏 피워올린 큰 꿈의 문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7. 명판 개봉에 이어서 신명나는 ‘천고울림’과 피리 대금 아쟁 장고 반주에 어울린 성주풀이, 박진감 넘치는 풍물연주, 그리고 출연진 전원과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행사장을 돌아오는 ‘지신밟기’로 잔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8. 파주군 문발리 지역주민에게도 이번 행사는 흥겹기만 하다. 이웃주민들까지 모여 잔치 음식을 나누며 출판인들의 꿈잔치 흥을 돋우었다.

